

# 나눔터

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일시: 1997년 10월 14일 오후 2~5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3F 대강당 • 후원: 서울특별시

##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이렇게 생각한다 새 옷을 입은 성폭력 특별법 .....	3
여기는 상담실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청소년 가해자 .....	5
성폭력문제연구소 중학생 성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7
기획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 .....	9
성문화 읽기 일류감독(?)이 만들어낸 삼류 예로영화 .....	11
몸 이야기 순결 이데올로기를 쓸어버리고 .....	12
길을 따라서 열림터 친구들을 만나며 .....	13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	14
나눔터 게시판 .....	15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연구소 02-576-5450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가요제 및 여성유권자 반보기축제 문화 공연 참가**

노래도적(본상담소 노래패)은 8월 8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가요제'에 참가했다. 박부식의 시에 노래도적의 박병헌이 곡을 붙인 '비'라는 제목의 노래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서 응원상을 수상했다. 10월 11일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개최한 여성유권자 반보기축제 문화공연에 참여하여 축하공연을 하였다. 종묘공원에서 열린 이 공연에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노래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지킴이 모꼬지

7기 지킴이를 중심으로 양평에서 꾸려진 여름 모꼬지. 개강 무렵이라 참가인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상담과 성문화에 관한 토론, 성폭력에 관련된 상황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알찬 모꼬지가 되었다.

### 토요법률상담 변호사 전제 모임

9월 9일 호화반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본상담소의 토요법률을 지원하는 변호사들과 상담파트 상근자들이 모여 97년도 토요법률상담 진행상황과 법적 지원사례 결과를 검토하고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제언들을 토론했으며,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내담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에 마땅한 법적 서식을 마련하고, 내담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를 만드는 데 변호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제10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학과 상담학 24강좌로 이루어진 본상담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과정을 32명의 교육생들이 수료

하였다. 11월에 실시되는 3주 동안의 실습교육을 마친 후, 이 중 16명은 전주, 강릉, 군산, 여수, 의정부, 평택, 인천 등의 여성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들로 현지에서 성폭력 상담을 담당할 예정이며, 그 외

16명은 본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건강한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이라는 주제하에 10월 14일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단체와 관, 학교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8기 지킴이 교육



제8기 지킴이(야간상담원) 교육이 10월 17일부터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은 11월 29일까지 7주 동안 매주 금·토요일로 진행되며 60명의 여남학생,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 실습을 마치면 본상담소 야간상담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 열린터 집단상담

10월 24일~25일에 걸쳐 열린터 퇴소자 두 명과 입소자 다섯 명이 함께 집단상담을 하였다. 본상담소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정영옥 선생님과 김병숙 선생님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노래도적 진중현이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힘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1997년도 하반기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가 11월 1일 본상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상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새 옷을 입은 성폭력 특별법

장윤경(본상담소 사무국장)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오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3년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오던 성폭력 특별법이 새로운 옷을 입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권리의 더 많은 부분을 찾아주기 위하여 새 단장을 한 것이다.



다. 그리고 각종 공청회에 참가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개정을 예측했듯이 이 개정안은 또 한 번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여성계가 중점을 두고 건의했던 핵심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개정된 주요 내용은

### 1.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

이번 개정작업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당시부터 예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조항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차상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 번, 세 번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법적, 제도적인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성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인 성폭력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어 여성계는 1991년부터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3년간의 노력 끝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직접 만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계 시안의 주요 부분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개정을 예고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여성계는 제정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당에서 나온 개정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해왔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기중 처벌, 친고죄 폐지(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기중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여 제3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강제추행을 할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조항의 신설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 2)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장(제7조)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장하고 친족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속의 친척과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개정하여 연하에 의한 친족 성폭력도 처벌받게 되었다.

### 3)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제8조)

개정 전의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에만 한정시켜 정신장애인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장애자의 피해도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4)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기능(제22조의 2)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순결관이나 피해자 유발론 등으로 인하여 다시 심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수사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신고의무화(제22조의 3)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다.

6) 증거보전의 특례 조항 신설(제22조의 4)

피해자가 재판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7)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벌칙규정 신설(제21조)

성폭력 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신설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에서 주장해온 성폭력 개념 정의와 친고죄 전면 폐지 등의 중요한 문제는 여전이 남아 있다.

3. 여전히 빠져 있는 부분은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다. 성폭력 특별법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의 순결관,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의 저항 여부 증명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건노출이나 신분노출을 꺼리므로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정의하여 성폭력을, 원하는 않는 인간의 성을 침해한 폭력의 의미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폭력을 사회적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가두어두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성희롱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킬 때 발생하는 전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아직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특별법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4. 남은 과제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인 범죄라는 측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여 법적으로 인권을 찾으려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렇듯 성폭력 특별법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성폭력 특별법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개정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일반시민, 여성계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에 신중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하게 지켜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줄 더이상의 개정작업이 필요없는 성폭력 특별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는다.



#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청소년 가해자

조중신(본상담소 상담부장)

성폭력 상담에 있어서 가해자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 요인의 파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서 오는 후유증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해자 연구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성폭력이 학교폭력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범죄의 연소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선도와 치료가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성폭력 가해자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1. 가해자 요인

본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담이 거의 피해자측의 의뢰로 이루어진다. 내담자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혹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이 상담이나 문의를 해 오기도 하지만 아주 드물다(1997년도 1월에서 9월까지 2,687회 중 41회). 이 중에는 학내 성폭력 사건에서 여학생회의 요구로 가해자가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두 건 있었다. 고소되거나 구속된 가해지들에 대한 범행동기, 성인식, 가족배경 등이 간혹 보고되고 있지만 검거되지 않은 자에 대한 파악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상담소의 피해자 상담에 나타난 가해자를 분석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상담소에서는 내담자의 설명을 통해서, 또는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가해자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1. 성별, 나이, 학력,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결혼 여부, 가족관계, 전과 여부, 전력 여부, 성격상의 특이점(난폭, 폭력적, 내성적, 자폐적, 장애 등), 알코올 및 약물사용 여부, 다른 피해자 여부.
2. 가해방법(유인, 협박, 위계, 원력, 구타, 침입, 납치, 흉기소지, 집단행동 여부), 가해유형(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제추행, 언어추행 등), 가해 후의 반응(시인, 사과, 애정합리화, 부인, 피해자 비난, 회유, 도주, 협박, 금품갈취, 지속가해, 소문내기 등).

3. 고소 여부(신고, 고발, 고소), 고소 후의 반응(부인, 회유, 화간 주장, 합의요청, 협박, 행패, 맞고소 등), 수사재판 과정과 결과(경찰수사중, 검찰수사중, 합의로 고소취하, 기소 여부, 재판: 1심, 2심, 3심).

4. 가해자측 가족의 반응(합의요청, 애원,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조름, 방치, 피해자 비난, 이사, 가해자를 야단침,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공탁, 재판부에 탄원 등).

올 1월부터 9월까지 본상담소에 의뢰된 상담 1,780건 2,687회 중에 청소년 이하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134건 154회이다. 유치원 유아가 어린 유아를 성추행한 경우가 2건, 초등학교생이 어린 유아나 저학년 어린이를 강간한 사례가 2건, 성추행한 사례가 8건이고 나머지 122건이 중고등학생(자퇴생 포함)이 가해한 사례였다.

## 2.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

1) 유아(5~6세)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8~10세)들이 엘리베이터나 놀이터에서 만난 동네 오빠, 또는 모르는 오빠에게 끌려가 공중화장실이나 계단, 옥상, 빈집, 뒷산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친오빠, 사촌오빠, 의붓오빠, 이웃집 오빠, 놀이방 원장 아들, 과외 선생 아들 등 이는 관계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성추행은 대부분 중학교 1,2학년 남학생들이 가해자였고 들춰보기, 보여주기, 만져보기, 만지게 하기, 빨기, 강간 시도, 항문추행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

2) 청소년(중고등학교 여학생) 피해사례에서는 친구소개로 만났다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여럿이 어울리다가, PC통신으로 알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건수:전체 134건(100%)
친오빠	6(4.5%)
(외)사촌오빠	13(9.7%)
입양오빠	2(1.5%)
동네 이웃오빠	27(20.2%)
동급생(동창)	16(11.9%)
선배(이는 오빠)	15(11.2%)
데이트 상대	22(16.4%)
기타(제자, 아들 친구, 사돈, 독서실 손님)	4(3.0%)
모르는 사람	29(21.6%)

가해자	149명	유형	134건(100%)	피해자	134명
초등학생	2	강간	63 (47.0%)	유아	2
중학생(자퇴생)	13(1)			초등학생	11
고등학생(자퇴생)	48(5)			중학생	21
				고등학생	25
				성인	4
중학생	5	특수강간	16 (11.9%)	초등학생	1
고등학생	26			중학생	7
				고등학생	6
				성인	2
중학생	1	강간미수	3 (2.3%)	유아	1
고등학생	2			초등학생	1
				성인	1
유아	2	강제추행 (통신매체 음란)	52(1) (38.3%)	유아	22
초등학생	8			초등학생	17
중학생	26			중학생	7
고등학생	16			고등학생	5
				성인	1

되어, 저녁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학교 자율학습이나 학원에 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다가 산이나 외진 곳(학교 화장실, 도서관 뒤의 숲 등)으로 끌려가 강간, 강간치상, 특수강간(음란, 흥기로 위협)까지 당한 경우들이 나타났다. 가해자가 데이트중인 애인이거나 이는 오빠인 경우에 피해자 자신은 강간으로 인식하여 거부하고 저항 하지만, 상대방은 적극적인 접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여럿 있고, 임신이 되어 낙태에 대한 문의를 해 오기도 했다.

부모가 알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딸의 신분노출을 꺼리고, 수사 과정이 고통스러워 신고를 꺼려하거나 망설인다. 그러나 신분을 알고 갔거나 학교를 알고 간 경우에는 재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누군지 알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만, 단서가 없이 도망친 경우에는 그다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미온적일 때 가해학생이 입은 티셔츠에 박힌 학교마크를 기억해내어, 그 학교로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전교생의 학적부 사진을 뒤져서 가해 남학생을 찾아낸 사례와 같이 부모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잡아낸 경우도 있다.

3)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힘이 세거나, 학년이 높은 선배, 여러 명이 집단을 형성하여 나이 어린 후배나 힘이 약한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갈취를 하면서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경우가 꽤 많다.

모르는 중학교 형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여 따라갔다가 음화를 보고 여러가지 성추행을 당한 초등학교 남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청년에게 공중화장실 안에서 항문성교를 당한 중학생이 에이즈에 걸렸을까 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불량스런

누나들이 커터칼로 긁는다고 위협하며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보고 놀렸다고 중학교 남학생이 상담을 청해 오기도 했다. 또한 본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혼숙중에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4) 드물지만 성인이 청소년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새벽기도를 가던 할머니가 흥기로 위협당하며 강간을 당한 경우와 절도범으로 검거되어 형을 살고 나온 18세 청소년이 복수하려고 신고한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독서실에서 밤을 새던 고3 학생이 학생들이 다 가고 난 이후의 시간을 틈타 주인여자를 흥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탈하고 강간한 사례, 학교 여교사의 집에 3개월 동안 음란전화를 걸다가 발신자 추적으로 발각된 중3 남학생이 전학을 요구받기도 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침입, 흥기위협, 금품강탈, 고소를 못하게 강간, 폭력과 상해도 서슴지 않는 등 치밀한 계획과 잔혹한 수법을 보이고 있어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연소화되어 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 3.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상담에 나타난 피해자측의 요구

1) 형사적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친족인 경우 5년 이상)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친족인 경우 3년 이상)이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초범이거나 학생신분일 때는 정상참작이 된다.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정기적으로 선도를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한다.

2) 경제적 보상 : 고소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고소취하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는다. 기준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그의 피해자측의 요구 : 학교에서의 징계, 사과, 공개사과, 전학, 이사, 이상이 나타날 때 보상,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정신감정 및 치료 등을 요구하며, '때려주겠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 4. 청소년의 가해동기와 현상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하게 되는 경위는,

1) 인격의 발달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반면 신체적인 성욕구가 활발해지면서 우울과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2) 단지 호기심으로, 친구가 하자고 해서, 여자가 원하는 것 같아서 했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3)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로부터 유대가 약화되면서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폭력과 음란물에 접촉하면서 성폭력을 부추기



는 '강간신화'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남성다움을 성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과장된 성적인 행동을 보이고, 자신들의 생활방식인 폭력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을 혼내주고 굴욕감을 갖게 하는 데 사용한다.

5)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비하감에 바탕을 두고 여성에 대한 지배를 과시하고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폭력을 기본을 푸는 오락과 모험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한다.

6)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상화시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에 의한 피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성폭력의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실제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작업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고착되어 있는 성폭력 행위는 처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재범으로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건강한 성 만들기』

중학생 성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경미(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건강한 성 만들기』는 본상담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의 일환으로 내놓은 첫 번째 성교육 지침서이다. 지난 여름(97년 7월 28일~30일) '홀짝 크는 여름: 청소년 성교육 캠프'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각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장단기별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지침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본상담소가 지향하는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이 인간교육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성교육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 관습 등과 연관하여 현재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중략)... 따라서 본 지침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욕구와 이들이 몸담고 있는 성문화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에 관련된 정보, 선택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기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지침

서의 목적이자 본상담소가 지향하는 성교육의 방향이다."

제2부는 캠프에서 제시되었던 성교육 프로그램과 인간관계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과 교육효과, 교사의 피드백 및 캠프진행과 내용에 대한 평가 등을 실었다. '성입문' '슬라이드: 그림으로 보는 성'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택의 순간: 이야기 속으로'의 다섯 가지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둠별 작업을 통하여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토론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슬라이드 상영 시간에는 여학생이 주로 보는 순정만화와 남학생이 주로 보는 성인만화에서 발췌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 낭만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 등의 장면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캠프를 진행했던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토론시간이 짧았다는 점, 2박 3일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한 주제로 특화된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모둠의 구성을 남녀가 같이, 또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만으로 융통성 있게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3부에서는 네 가지 주제로 모아진다. 프로그램은 7,8명으로 구성된 모둠별 작업을 하고 난 이후 다시 전체가 모여 이를 검토하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같은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입문, 대중매체를 통한 성문화 이해, 성폭력 예방, 바람직한 성적 의사결정 등의 주제로 모아지는데 각 주제는 5,6회의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성입문’은 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하기,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성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기, 성과 관련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학습하기, 성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기, 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학습하기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확대 프로그램은 캠프에서 실시한 성입문 프로그램(‘성으로 들어가기’)과 함께 성에 관련되어 정확한 용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은어를 표현하게 하는 프로그램(‘은어와 용어’), 대중매체(만화, 영화, 잡지, 소설, 광고 등)에 나타난 성문화를 재조명하면서 시각적으로 이를 재구성해보는 프로그램(‘성문화 재구성하기’), 남녀 생식기관들의 명칭과 사춘기에 시작하는 생식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프로그램(‘남녀 생식기관에 대한 이해’), 성에 관련되어 궁금한 것을 무엇이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게 하는 프로그램(‘궁금한 성’), 주변 어른들을 인터뷰하여 당시의 성문화와 성규범을 현재와 비교하면서 성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실감하는 프로그램(‘역사 속에 나타난 성의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문화 이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와 고정된 성역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 성문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하고(‘유행을 가로질러...’),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노골적이고 교묘한 성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게 한다(‘성을 찾아라!’). 고정된 성역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대중매체의 시각과 태도를 파악하고 고정된 성역할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억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고정관념을 찾아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만화로 보는 성’).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왜곡되고 상품화된 성적 이미지와 고정된 성역할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실천적

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훈련을 한다(‘우리들의 목소리’).

‘성폭력 예방’은 성폭력의 개념 및 발생의 실태를 학습하고, 성폭력에 대한 일반통념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며, 대중매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신은 어떠한 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성폭력 피해와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실태와 원인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 학습하고(‘성폭력 퀴즈’), 대중매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하여 잘못된 통념이 어떻게 유포되거나 강화되는지를 알아보면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대중매체와 성폭력’).

이외에도 성폭력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현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르포 형식의 극을 관람하고 이를 논의하는 프로그램(‘비디오로 보는 성폭력’), 본인이나 주변에서 성폭력 피해나 가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임을 주지시키면서 지금 어떤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떠하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야기로 풀자’), 역할극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실감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극복하고 성폭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성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성 및 과정에 대해 학습하기, 자신의 성적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 삶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기, 성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아 이를 공유하기, 성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성적 의사결정을 내린 이후의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이미 내린 결정을 한 번 더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기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고(‘바람직한 의사결정 연습’), 학습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성적 갈등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다(‘성적 의사결정 연습1’). 그리고 청소년기에 흔히 부딪히는 성적 갈등상황인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훈련과(‘성적 의사결정 연습2-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 토론’), 주변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해나가며 자신의 의사결정 내용을 일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의사결정 내용을 실행하기’).

본상담소는 앞으로도 현실감 있는 성교육을 위하여 토론과 실험을 거쳐 청소년에게 다가서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청소년 교육에 힘쓰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지침서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김지혜(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성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당위론적인 접근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청소년이 접하는 음란물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러한 표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상담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실태를 살펴보고,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하는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음란물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가 하는 등의 음란물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음란 비디오 촬영, 스포츠 신문의 음란성에 대한 고발, 일본만화의 입수 등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음란물이 적어도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하다는 사회 전반의 합의와 그에 대한 반대운동 속에서도 정작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음란물은 무조건 나쁘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매체를 접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나 이미 성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당위론적인 접근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청소년이 접하는 음란물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러한 표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상담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실태를 살펴보고,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하는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고, 각 단체와 관, 학교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여 본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① 슬라이드

상영 : 인터넷, 만화, 비디오에 나타난 음란물(김지혜 : 필자), ②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김준호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성폭력문제연구소 문화분과장, 김혜원 : 이대 심리학 강사/성폭력문제연구소 상담분과장), ③ 여학생의 음란문화 경험과 성인식(풍문여고 문예반 학생들)으로 이루어졌고, 종합토론은 강지원(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오류중학교 교사), 이은옥(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공동대표)이 각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첫번째 발표는 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음란물에 대한 슬라이드(인터넷, 만화, 비디오에 나타난 음란물) 상영과 이에 대한 원고발표가 있었다. 슬라이드 자료로 사용된 음란물은 비디오 네 편, 97년 1월에서 7월까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나 경고조치를 받은 만화,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는 SEX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분적인 자료로 제작된 이 슬라이드는 음란물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음란물은 어떠한 묘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 음란물에서 성, 여성, 성폭력 등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가,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성이나 여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두번째는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에 관해서 김준호 선생님, 김혜원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는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1997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음란물과 관련된 학생들의 실태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란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그들이 이러한 음란물의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모방심리를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들이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우선 음란물 접촉과 성비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떠한 요인이 음란물 접촉에 영향을 주는가, 음란물 접촉과 여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변인이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음란물과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번째 발표는 여학생의 음란문화 경험과 성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풍문여고 문예반 학생들이 주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래방, 비디오방, 나이트, 락카페, 포르노 비디오 등과 같은 문화에 대한 여학생들의 경험과 이들의 성적인 접촉, 성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이를 깨끗하게 지키며, 바람직하게 이성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열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순열 선생님은 성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연간 열 시간인 성교육 시간마저 시간때우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선 교사들의 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여과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은옥 대표는 여전히 가정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단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가르쳐주거나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상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성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강지원 위원장은 수직적인 성가치관과 수평적인 성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성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우리가 건강한 성의 기준, 강제와 동의의 구분 등을 명확하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성문화를 지적하며, 정보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토론에 이어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나와서 이러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청소년의 성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이 논의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홍보로 많은 시민과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참가자의 의견이 덧붙여졌다.

"어른들이 비디오방, 소주방, 잡지 다 만들어서 우리를 상대로 돈 벌고, 사창가 가서 어린 10대를 찾으면서, 요즘 애들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때마다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먼저 어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문화가 된다고 본다."(풍문여고)

음란물의 범람과 이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흔히 청소년의 성도덕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하는 문제로 접근해서 인간교육의 확대와 윤리교육의 강화 등의 대안으로 끝을 맺기 일쑤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윤리가 타락한 것도 아니며, 또한 이러한 문제가 윤리교육의 강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유통시키고, 게임으로 만들어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들이 존재하는 한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성인들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 터진 이후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시각에도 오히려 이를 구하려는 어른들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비디오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한편에서는 이를 본 만 '빨간 보자기' 등의 아류작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항상 어떠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가, 어떠한 부분까지 심의를 거치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만 논의되어져 왔다. 이는 여전히 표현물에 대한 단속, 음란물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또 제작, 유통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제는 단순히 일 반청소년을 수동적인 입장으로 제한시켜 놓고, 볼 것을 선택해주고 금지시키는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문화 속에 존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미래의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청소년을 그냥 맹목적인 수용자의 위치로 제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격체로 길러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입장과 시각, 당면 문제들에 대한 성찰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일류감독(?)이 만들어낸 삼류 에로영화

박김기화(매매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매매춘’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유추해낸다. 좁다란 골목길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전등빛, 속살이 다 비치는 듯한 야한 옷차림과 질게 화장한 여자들, 요염한 여자들의 유혹을 못 이기는 듯 휘청거리는 술취한 남자들이 넘쳐나는 거리. 임권택 감독의 <창(娼)-노는 계집 창>은 매매춘에 대한 사람들의 잠재된 이미지로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화의 서막을 거두어 올린다.

영화 <창>은 한가락은 끊임없이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이나 운서의 내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줄기가, 다른 한가락은 매매춘의 역사적 표류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던 주인공 영은(신은경분)의 소진되어 가는 20년 삶의 줄기가 만나 이야기를 꼬아나가는 줄 꼬기와 같다. 그러면서 영화는 영은에게 유일한 삶의 인식처인 고향을 찾아주고자 애쓰는 길룡, 영은의 삶에 교차되어 지나가는 매춘여성들과 남성손님들, 매춘여성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포주와 기동서방들의 삶을 스케치하듯이 그 줄기를 따라 보여준다.

어느 날 영은은 손님으로 찾아온 중년남자가 옷을 벗으며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그에게 냉소적으로 “아저씨가 알아서 뭐에다 쓰게.”라는 대사를 던진다. 이를 보면, 임권택 감독은 역사성을 앞세워 매춘여성의 삶을 추적하고 있는 영화 <창>을 통해 사뭇 진지하게 매춘여성에게 씌워놓은 사회적 편견을 향해 경멸과 조롱의 침을 뱉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남성감독으로서, 그리고 여전히 남성들의 쾌락에 충실하고 있는 상업영화를 생산하는 감독의 한계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감독’으로서 그의 수준은 ‘성차별주의자’, ‘삼류 영화감독’의 전형을 보는 듯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우선 이 영화는 한국의 역사와 매매춘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역사라는 이름 아래(‘매매춘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포주의 대사처럼) 매매춘을 태초부터 존재해온 불가피한 사회적 사실로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성 때문에 하나의 사실이 진리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매매춘의 역사성은 인간사회의, 남성중심 사회의 문제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차별화시키는 경계는 ‘이성’으로 설명하면서, ‘성’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시 동물적 본능을 앞세우는 남성들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들의 본능적인 성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본능적인 성욕이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통해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이란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오히려 통제에 대한 미약한 장치들이 본능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삼류 에로 영화 감독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영화적 미학, 혹은 ‘민족’ 감독이라는 이름 때문에, 임권택 감독은 자신의 에로영화를 위해 ‘역사’라는 방패막이 필요했던 것 같다.

둘째, 임권택 감독은 카메라의 제3자 시점을 빌어 시각의 ‘객관성(?)’을 내세우며, 매춘여성들의 고통을 감추고 있다. 카메라는 끊임 없이 매춘을 하는 여성, 매춘을 하는 남성, 아니면 남성들의 눈에 비치는 매춘여성들의 몸만 끊임없이 보여준다. 영은에게(매춘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섹스(정확하게 자신의 성기를 대여해주는)로서 매춘행위는 여자만 보면 구멍을 생각하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의 머리보다 몸뚱이를 더 돈으로 쳐주는 자본의 논리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어렵게 선택하는 일이다. 그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격적인 자기완성이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직업도 아닌, 그저 토악질나는 행위다.

영화 <창>은 매매춘 행위를 행위 자체로서 분리시켜 내어, 행위에 개입되는 감정은 카메라 너머 어디엔가 자리잡은 듯 읽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의 시선으로 넘어가지 않는 카메라는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맑게 개입인지, 비오고 흐림인지, 늘 흐림인지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매춘여성의 갈등을 여성관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므로, 남성들에 의한 여성간의 분리(창녀와 어머니)된 이미지만을 제공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매매춘 문제를 다룬 한국영화들이 무엇보다 여성을 남성들의 쾌락의 대상화 작업에 앞장 서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영화 <창> 역시 기존 영화들의 맥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애마부인’ ‘젓소 부인’ 시리즈가 노골적으로 섹스심벌로서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영화 <창>은 신세대 여성의 이미지를 지니은 신은경이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성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영화 속에서 잦은 영은의 전라장면, 남성과의 섹스신(특히 영은과 그의 기동서방과의 섹스장면은 포르노 영화를 보는 듯하다)을 보여줌으로써 극장으로 남성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것이 상업영화로서의 한계라고 변명한다면 임권택 감독은 관객들이 그에게 붙여온 칭호에 대한 관객기만이자 동시에 감독으로서의 자기방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제 한국영화의 역사에서 영화 <창>은 비디오가계의 구석진 진열대를 차지하는 삼류 에로영화의 궤보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순결 이데올로기를 쓸어버리고

김선우(나눔터 기자)

얼마전 친한 선후배 몇몇을 만났는데, 우연히 동성연애자들의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남녀간의 성교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성교를 하게 되면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항문에 삽입하기도 한대...”라는 한 친구의 말에 마주앉아 있던 대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 녀석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어떻게 누나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말을 해요?”

“야, 이게 무슨 음란한 얘기냐? 넌 성교육도 안 받았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정말이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문란한 성문화에 빠져 있는 것만 같고 언론에서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깨지고 있다고 큰소리로 보도하지만, 실상 요새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 말인가?

실제로 순결 이데올로기는 점점 깨지고 있다. ‘현대 리서치’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1,181명) 중 27.1%가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27.8%는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 성관계를 갖는 프리섹스에 찬성했다. 또한 57.9%가 혼전 동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68.5%가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게다가 남성은 초혼이고 여성은 재혼인 경우의 커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순결 이데올로기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고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한 방송국의 기자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살사건에 대해, “수치스런 삶 대신 깨끗한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라는 멘트를 내 보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인하여 1개월 취재정지 처분을 받고 급기야 사과방송을 해야 했다.

그것이 그 기자의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장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일부의 성인식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자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반인 것은 굳이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제

시하지 않아도 극명한 현실이다. 그 속에서 순결이니 정조니 운운하는 기성세대들의 시선을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프리섹스라는 엄청난 단어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한다.

이 속에서 살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뿐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실행 가능한 범위인지 알 수가 없다. 기성세대들과 말 많은 언론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지금까지의 순결 이데올로기나 정조관념이 붕괴하는 것은 일단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일방적으로 여성들만의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나는 ‘책임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초점이 모아질 때, 이 산만한 이중적 성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의식전환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깨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사회라는 그릇이 이를 담을 수 없으면 그런 인식들은 사장되어 버린다.

현재 ‘강간과 추행에 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국한하는 성폭력의 개념 역시 하루빨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추석 때었던 것 같다. <열녀 춘향>이라는 창극을 보았다. 요즘 세상에 웬 열녀타령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열녀가 되는 것, 정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자신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는 춘향이 ‘열녀 춘향’이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했던 춘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만 순결이니 정조니 하는 단어들은 젓은 낙엽을 쓸어버리듯 쓸어버리자.



# 열린터 친구들을 만나며

김선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본상담소 실습생)

우리는 흔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나에게만은, 나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만은 가슴 아픈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도처에는 온갖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웬지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 그것이다.

나는 과 특성상 3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실습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실습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의 실습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유독 내 마음을 끄는 것이 한국성폭력상담소였다. 얼마전에 라디오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방송을 듣고 같은 여성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페미니스트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일반복지관과는 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이곳에서 실습하는 동안 성폭력에 관한 각종 자료와 책을 접하면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성폭력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 맞서 열성을 가지고 묵묵히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열린터에서 내담자들과 어울리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잘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실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도 '뭔가 했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내가 할 일은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숙제를 좀 많이 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들의 말에 더욱더 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엽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했다.

내담자들은 대개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옆집에 사는 어린이들과 같이, 10대들의 유행을 따르고 야무진 꿈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사실 그 아이들의 내면에는 아픈 상처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이들의 올바른 정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일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다. '무언가 보통사람들에 비해 사고방식이 비관적일 것이다'라든가 '그들의 행동거지가 보통사람들과 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찍어 버리는 행동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다. 또 그러한 행동들은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술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이나 한다는 것은 용서 못할 일이다.

그러나 나는 믿고 싶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걸어가려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또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작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혹은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며, 대책연구를 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선생님들께도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행복과 불행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슬픔에 젖어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야 할 아무런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결실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이야기하고 싶다.

##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수지(나눔터 기자)

이 사람, 한일 축구전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토요일 오후에 만난 장본인은 바로 본상담소의 이미경 부소장님. 상담소가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함께 일해왔던 '큰언니'였고 지금은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소장직 대행을 함께 하며 부소장으로 5개월째 일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그동안의 제 시간들을 쭉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말문을 연다.

이미경 부소장님은 91년, 상담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최영애 현 소장님과 정경자 전 총무와 함께 개소를 준비하고 이후 상담소 ‘총무’로 2년 반 동안 일했었다.

“그때는 정시 퇴근이란 개념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정말 몰입해서 일만 생각하고 살았던 때였지요.”

그러던 그가 호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충전의 기회를 갖고 싶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타성에 젖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진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사실 참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상근직을 떠나더라도 상담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있겠다는 마음에는 물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유학한 곳은 호주의 NSW대학.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곳에 있는 동안 호주 한인복지회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폭력관련 센터를 방문해 밤길 되찾기 등의 행사에 참여했고, Women’s Health & Sexual Assault Education Unit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호주의 경우 1974년에 시드니 강간센터(Sydney Rape Crisis Centre)가 생기고 78년에 정부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일찍부터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제도도 잘되어 있었고 상담의 질도 매우 우수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자원이 되었으리라.

그러던 그에게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다. 본상담소의 최영애 소장님이 미국 방문차 자리를 비우게 되는 기간 동안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를 대행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올 7월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연말까지 약 5개월여간 호주의 여성단체를 차근차근 방문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그였

었다. 하지만 소장님이 곧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7월말에 서둘러서 귀국했다.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부소장직을 맡아 정신 없이 4개월을 보냈다고 한다. 이제 5개월째 접어들니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상담소가 내부적으로 큰 발전을 해온 것에 대해 무척 놀라왔다고 소감을 이야기한다.

그는 호주에서 공부한 정책학과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단체들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뤄온 상담소의 내실화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 이 부소장님의 생각.

“상담소에서 그동안 일해주었던 사람들이 상담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다시 모으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현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담소가 자기계발의 장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심층을 모으는 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 그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32개소의 상담소와의 연결망 형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함께 활동경험을 나누고 성폭력 문제를 연구해서 국내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 기대하고 있다. 물론 상담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열람터처럼 중요한 기관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크다.

한편으로는 원광대에 출강하면서 반상근으로 매주 화,수,목에 상담소에서 일하고 ‘주말부부’로 부지런히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이 사람. “사실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커다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 그는 힘주어 말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사이버 토론회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0일) 행사에 맞춰 11월 24일부터 본상담소에서는 유니텔과 공동으로 특집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주 동안 열리게 되며, 첫번째 주에는 '여성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등의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주제로, 두번째 주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비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 및 검찰수사 과정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주제로 하며, 토론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토론은 게시판을 통한 토론회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 병행되며, 토론 이외의 행사로 통신 내에서의 성폭력 퀴즈 이벤트, 유니텔 고객센터원실에서의 '피고인' 오프라인 시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토론참여는 유니텔(01433)로 접속한 후 go discuss하거나, 초기화면에서 통신광장→토론마당을 통해 이동하면 되고,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유니텔 임시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정진욱 부장 / 576-7128

### '천리안'에도 '사이버 상담소'가 설립됩니다

유니텔과 마이넷에서의 IP개설에 이어, 천리안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IP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가 개설됩니다.

이제 세 개의 통신서버상에서 본상담소를 만나실 수 있으며, 올바른 성지식과 각종 상담사례, 성문제 관련기사 및 상담소의 소식 등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 있습니다. 마이넷에서 게이트웨이 전송방식으로 각 통신서버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통신을 이용

하셔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날이 거듭나는 상담소의 모습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신접속 후 잊지 말고 go ksivr !

문의 : 정진욱 부장 / 576-7128

### 본상담소에서 발간한 새로운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 1. 성폭력 전문 상담 교육 자료집

본상담소에는 지난 6년간 실시한 총 16회의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여성학(1부), 상담이론(2부),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성폭력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성학자·변호사·의사·성폭력 문제 전문가·심리 전문 상담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원들에게 구체적

인 지침서가 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격 : 8,000원

#### 2. 건강한 성 만들기

—중학생 성교육 지침서(본지 7p 참고)

가격 : 8,000원

구입문의 : 이경미 부장 / 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떤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6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 문의 : 장운경 사무국장 / 576-7128

### 새로운 후원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김경희, 권성희, 최유정

### 많은 분들이 상담소와 열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중, 김명륜, 김미숙, 김병숙, 김영자, 김지혜, 김효성, 노주희, 문해란, 박금자, 오세민, 유정순, 윤장순, 이운상, 이희숙, 임민희, 장운경, 정유석, 조영향, 조용민, 조중신, 조혜연, 최미영, 홍보연

윤경재단에서 본상담소에 격려금을 주셨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구입문의 : 이운상 부장 / 576-7128

### 우리 상담소의 심벌 유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벌인 유는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서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길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림터 : 529-4271~2, 위기상담 : 573-1896

#### 이사

강학중 · 문해란 · 민병진 · 박금자 · 오세민 · 윤장순 · 이종걸 · 조영향 · 최영애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전문위원

상담 ..... 인간재활학/김중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 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전인영

법률 ..... 검사/김옥철 변호사/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심파·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민·장재호·장철우·정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향·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용·권일훈·문국진·서종석·이경룡·이운성·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남소자·문영규·민용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어·이옥주·임용택·정경원 성형외과/경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장일·남정현·양장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

PC상담 .....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홍보 출판 ..... 시사판평가/최정연 신문방송학/김응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화찬 조소/홍성도 카피라이터/홍성애

재정 .....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장순

교육 .....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장병호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 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재경·장필화·조주연·허리금 인류학/장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영학/평문이/변재란

대표이사 · 박금자  
소장 · 최영애